

마침표와 불임표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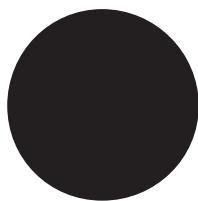
로와정
보르하로드리게즈
홍지연

2020. 6. 18. — 7. 31.
오래된 집

Between Period and Hyphen

Rohwajeong
Borja Rodriguez Alonso
Jiyon H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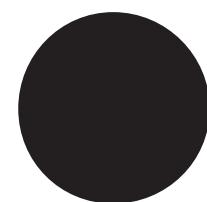
2020. 6. 18. — 7. 31.
Old House



마침표와 불임표 사이 Between Period and Hyphen

마침표와 불임표 사이

Between Period and Hyphen



태도와 형식: 2020 CAN Foundation

김성희 (캔파운데이션 기획이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오래된 집에서 캔파운데이션의 2020년 첫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캔파운데이션이 그동안 추진해온 국내외 레지던시와 전시 프로젝트를 〈태도와 형식〉이라는 주제 하에 초점을 맞춘 전시이기도 하다.

‘태도’와 ‘형식’이란 주제어는 이미 하랄트

제만Harald Szeemann이 1969년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는 전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그는 전시는 완성된 작품 자체를 보여준다는 의미보다는 예술이 창작되어가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서 작가들이 개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런 까닭에 당시 제만은 그 전시를 통해 작가들이 현장에서 개념을 잡고 공간 자체를 자유롭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과정, 바로 공간과 작품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세간이 떠들썩하게 되자 그의 전시는 미술사적으로 새로운 전시 기획

Attitudes and Form : 2020 CAN Foundation

Sunghee Kim (Can Foundation

Planning Director,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Professor)

The first exhibition of CAN Foundation in the year 2020 is being held at Old House. This exhibition also brings to a focu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rojects that CAN Foundation has been carrying on under the idea called 〈Attitudes and Form〉.

The keywords ‘Attitudes’ and ‘Form’ are established by and come from Harald Szeemann’s exhibition 〈When Attitudes Become Form〉 in 1969. In that exhibition, he revealed the artists’ conceptual process, presenting the progress of art being created rather than a finished work itself. For that reason, Szeemann’s exhibition was recognized for revealing the process of the artists conceptualizing the subject matter at the scene, openly interpreting and expressing the space itself, which is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artwork.

Such a groundbreaking curatorial approach has gained remarkable attention by which the exhibition has become one of the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시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당시 제만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말했다.¹ “오늘날의 예술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더 이상 공간의 조성이 아니라 인간행위의 조성이라는 점이다: 예술가들의 행위는 지배적인 주제와 내용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본 전시의 타이틀이 이해되어야 한다(이것은 슬로건이라기보다는 문장이다)…… 그들은 예술의 과정 자체가 최종 산물과 그 ‘전시’에서 가시적으로 남기를 원한다. 자신들의 봄의 부피와 인간적 동작의 힘이 이 작가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새로운 ‘형태와 재료의 언어’를 창조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제만은 전시 서문에서 밝혔듯이 중요한 것은 전시에 출품되는 완성된 작품 보다 작가들의 작업 행위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개념을 잡아가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는

방점을 두었다. 그런 생각으로 제만은 전시도록 구성을 작업구상에 대해 소통했던 작가들과의 서신과 작가 스튜디오 방문 시에 나누었던 대화록 그것을 기록했던 노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전시 준비과정을 그대로 보여 주는 새로운 도록의 형식을 창작해 냈다.

그에게 있어 도록은 전시작품 요약집이 아니라 창작과정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말한 내용과 개념이란 주제는 마치 한 인물의 지니는 인생에 대한 태도와 동일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다소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에 대하여 고든 윌러드 올포트 Gordon Willard Allport는 '개인이 외적 사물 및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정신적인 상태'로 태도를 개념화 했으며, 이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²고 보았다.

인간이 평생 지니고 살아가는 자신의 태도, 말하자면 모든 상황과 타인에 대한 태도가 결국의

자신의 형식, 즉 자신의 성격이나 특성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는 문장이 태어난 셈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실제로 일관성 없는 개념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태도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만의 형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진솔하고 일관성 있는 자신의 철학과 개념이 담아있는 태도를 지닐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 만의 형식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캔파운데이션은 <태도와 형식>을 2020년의 주제로 잡게 된 것이다.

지금 오래된 집의 전시는 태도와 형식이란 대주제 안에 소주제로 『마침표와 불임표 사이』라는 표제로 언어의 불완정성과 의미의 다양성 안에서의 참여작가들만의 해석과정을 현장에서 개념을 설정하고 공간과 작품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작가들의 작업 태도가 오래된 집 공간과 하나의 형식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 오래된 집의 이번 전시로 로와정, 홍지연, 보르하 로드리게즈 Borja Rodriguez Alonso, 세사람의 작가와 그들의 작품들을 통해 작가란 개념을 태도와 자유 과정 속에 어떻게 작품으로 풀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실험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P38, 이성휘, 하랄트 제만의 전시기획의 제도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석사논문 제인용 Harald Szeemann, “Zur Ausstellung, “Kunsthalle Nern(2006), op,cit,

2. Allport, G. W. 1935. Attitudes. In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Edited by C. Murchison, 798–844. Worcester, MA: Clark Univ. Press. (<https://www.oxfordbibliographies.com/view/document/obo-9780199828340/obo-9780199828340-0074.xml#obo-9780199828340-0074-bibItem-0003>)

most significant exhibitions in art history that manifests a leading-edge curatorial course. At that time, Szeemann spoke his mind as¹ ‘The greatest significance of today’s art is that it is no more about the composition of space but rather about the composition of human acts. The artists’ action has become a dominant subject and material.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should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it is a sentence rather than a slogan)…… They want the process of art itself to be the final product and to remain visible at the ‘exhibition’. The volume of their own bodies and the energy of their human movement play a crucial role for them; and it is imperative that they are creating a new ‘formal and material language’.

As Szeemann stressed an essential point in his exhibition preface, he concentrated on presenting the artists in working action over those finished works submitted to exhibitions, which is to exhibit the whole process of an artist initially sketching out one’s ideas and narrowing

them down to a concept. Under such intention, Szeemann created a new form of catalog that embodies the development of the exhibition as it stands, which consists of the letters he exchanged with the artists about their works in progress and the photocopies of written notes and dialogue records from visiting their studios.

To him the catalog was not a summarized record of exhibition works but a part of creative process. Thus the idea he mentions by subject matter and conceptualization is in contextual alignment with a person’s attitude toward life. As abstract as it may sounds, Gordon Willard Allports supposed that such an idea conceptualized attitude by establishing it as ‘the state of mind influencing individual’s reaction to external objects and conditions’, which is developed by experiences.²

One’s attitudes facing all given situations and toward others - in short, the retaining attitude throughout one’s life - reveal the form

of one’s own character or characteristic in the end, from which the sentence ‘When Attitudes Become Form’ came along. Yet not everything may fall under this case. Because there are human attitudes that vary by inconsistent ideas and circumstances. Such attitudes cannot be considered as one’s original form; which is built on the attitude that contains one’s consistent and truthful reasonings and ideas.

In this context Can Foundation has set <Attitudes and Form> as its curatorial vision for 2020.

Under the theme of ‘Attitudes and Form’ and the sub-theme titled ‘Between Period and Hyphen’, the exhibition at Old House presents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space and the work as it is; the individual process of how the participating artists interpret the incompleteness of language and semantic diversity, and conceptualizing the subject matter at the scene. This is to reveal a formal aspect that there is an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sts’ working attitude and the space of Old House. The current exhibition at Old House is to be a satisfying experimental opportunity that shows how the three arists, Rohwajeong, Jiyon Hong, Borja Rodriguez Alonso, and their works unravel the idea of artist through the process of attitude and reasoning.

1. P.38 Sunghui Lee, Harald Szeemann’s Curatorial Practice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focusing on When Attitudes Become Form and Documenta 5. (MA Dis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chool of Visual Art) as cited in Harald Szeemann, “Zur Ausstellung, “Kunsthalle Nern(2006), op,cit,

2. Allport, G. W. 1935. Attitudes. In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Edited by C. Murchison, 798–844. Worcester, MA: Clark Univ. Press. (<https://www.oxfordbibliographies.com/view/document/obo-9780199828340/obo-9780199828340-0074.xml#obo-9780199828340-0074-bibItem-0003>)

유독 한국에서 동일한 언어에서 파생되는 논쟁을 대표하는 것은 ‘첫사랑’에 대한 규정이 아닐까 한다. ‘첫사랑’이라 하면 누군가에게는 ‘처음 사랑을 느낀 대상’이지만 다른 누군가에는 ‘처음 사귐의 대상’으로 사회적 이중성을 지닌다. 다의어라 지칭하기 어렵지만, 개인의 문화, 경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동일한 언어가 가지는 다중성의 회색 영역은 때문에 소통의 부재를 양산한다. 과연 그 회색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언어뿐일까? 회색이라 말하기 이전의 흰색과 검은색, 우리가 정답이라 믿는 것들과 그 밖의 것들 사이를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번 전시의 시작은 그렇게 언어에서 시작해 사람들에게 잠재된 회색 경계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다수의 사람은 객관적 정보와 주관적 정보 중 객관적 정보를

Between Period and Hyphen

Soyoung Chung Curator, CAN Foundation

Particularly in Korea, one classic argument deriving from the same language seems to be defining the word ‘first love.’ The word ‘first love’ connotes duplicity depending on social context; it would indicate ‘a subject someone fell in love with for the first time’ or may as well ‘a subject someone had relationship with for the first time.’ It is hard to say the word is polysemic, yet the grey area within the same language multiply-shifting by individual’s culture, experience, and values creates the communicational void in the mass. Is that grey area singularly inhering in language? What draws a line between the blacks and whites preceding the argument of defining the grey and the correct answers we believe in and the others? This exhibition has begun from the language and progressed with the curiosity toward those grey borders latent among the mass.

In a process of getting new information, many would trust the objective information

신뢰할 것이다. 그렇다면 객관적 정보는 어떻게 탄생할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과학적 근거 또는 다수의 데이터가 만들어낸 수치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적 근거와 다수의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흔히 객관적 정보로 인식되는 통계자료는 다수의 표본집단이 내는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다면 다수의 표본집단은 결국 하나의 주관적 정보가 아닐까.

인터넷이 생활화 된 아래로 수 없이 떠도는 객관적 정보에서 결국 신뢰하게 되는 것은 주관적 정보일 때가 많다. 물건을 살 때 사용자들의 리뷰나 가장 정확해야 할 언론이 선거 전 정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면 결국 이 역시도 누군가의 주관적 정보이다.

이번 전시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 정보이자 사회적 약속을 대표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학자인 소쉬르(Saussure Ferdinand de)가 언급한 언어의 분류인 기표와 기의로 나누어 기표를 대표하는 객관적 정보의 불완전성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의의 다양성 사이에 존재하는 선입견에 대한 반기를 전시로 표현하려 하였다. 작가를 선정함에서는 문화와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객관적 정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표현하기 위해 각기 다른 카테고리에서의 작가를 선정하려 노력했다. 이에 언어를 가지고 작업 할 수 있는 작가 중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로는 로와정,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홍지연, 다른 문화 간의 인식 차이를 설명 할 수 있는 스페인 작가 보르하 로드리게즈(Borja Rodriguez Alonso)를 선정하게 되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르하 로드리게즈의 Google Trilogy 중의 하나인

between the subjective and the objective ones available to them. Then where does that objective information come from? Varied by cases, it must have been based on scientific grounds or formulated by statistical data figures. Then how are those scientific grounds and statistical data figures established? The statistics are commonly conceived as objective information, which bases upon the collective data from multiple sample groups. Then wouldn't the multiple sample group eventually reflect one major subjective information?

Since the internet has been popularized, it is the subjective information that highly ends up being trusted in a stream of immensely floating objective information. The post user review of a product or the fact that the mass media - ideally the most trustworthy fact provider - casting its political point of view proves that it is all someone's subjective information after all.

Centering on the language that represents the invariant objective information as well as the social agreement, this exhibition divides the language into the signifier and signified (the linguistic categorical term by the linguist Saussure Ferdinand de), which is to denounce the incompleteness of objective information representing the signifier and the prejudice imminent in the inconsistent signified varied by individuals.

As to the artist selection, the main concern has been to present non-overlapping categorial variation, which is to suggest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objective information varied by cultural and empirical influences. The selected artists use medium that holds linguistic capacity: Rohwajeong who lives and works in Korea, Jiyon Hong, Korean working in the U.S., and Borja Rodriguez, a Spanish artist who is capable of describing the perception gap between cultures.

〈Google Why〉 작품을 확인 할 수 있다. 〈Google Why〉는 특정 단어나 문구가 구글(Google)의 검색 엔진을 통해 어떻게 자동으로 완성되는지 보여주는 영상작품이다. 알고리즘을 통한 구글 엔진에 입력된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시어들은 현재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 고정관념, 환상을 나타냄과 동시에 검색 행동 양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의 작품은 기술 발전으로 얻어진 정확한 데이터 값이라 여겨지는 정보의 넉넉이가 또 다른 가상의 창조물이 되어 이용자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 모순을 표현한다. 때문에 전시장 초입에 있는 보르하의 작업은 오래된 집을 찾은 관람자가 전시장을 하나의 가상세계로 보고 현실과의 괴리에서 스스로 갖는 모순을 검색하기 유도한다.

오래된 집 중정을 비추는 유리창 너머 처마 끝에는 풍경의 모습을 떤 로와정의 작품이 걸려

있다. 전시장 내 가득 찬 맑은 풍경 소리에 문을 열고 마루에서 흔들리는 풍경의 모습을 찾지만 탁설(鐸舌)은 이내 움직임이 없다.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움직임 없는 풍경에서 들리는 소리는 풍경 아래 달린 활동판의 모습만큼이나 생경하다.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딕킨스(Emily Elizabeth Dickinson)의 시 구절을 뭉쳐 만들어진 활동의 모습은 에밀리 딕킨스의 시에 담긴 형상을 통해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존재하지만 존재할 수 없는 모순을 이야기한다. 또한 관람객 스스로가 체험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의 차이를 통해 사람이 ‘직접 보고 느꼈다’라고 말하는 가장 객관적 일 수 있는 오감에 대한 불확실성의 의문을 제시한다.

If I could tell how glad I was
I should not be so glad-

The work 〈Google Why〉, one of the pieces from Borja Rodriguez's Google Trilogy, greets the viewer at the entrance. 〈Google Why〉 is a work that shows how certain words and phrases are automatically completed in Google search engine. Those keywords base on the extensive amount of data input through the algorithm embedded in Google engine, representing the internet users' current interests, stereotypes, and illusions; and influencing their behavioral aspects of searching activity simultaneously. The work exposes the contradiction that a cluster of information regarded to be the most accurate value gained from the technical progress becomes yet another virtual creation influencing the user's way of thinking. For that reason, Rodriguez's work at the exhibition entrance attracts the viewer to find Old House's space as a virtual world and to search out the contradictory gap between reality and the space within oneself.

At the tip of the eaves seen through the window facing Old House's courtyard hangs the wind-bell looking work by Rohwajeong. The clear sound of wind-bell richly resonates in the exhibition space; one opens the door looking for the gently-swinging wind-bell in the open living room yet the takseol (Korean traditional wind-bell) shows no movement. The sound coming from the wind-bell showing no movement is as peculiar as the shape of the brass plate hung underneath it. The brass plate is made by wadding the verse by American poet Emily Elizabeth Dickinson, creating an image narrating inexpressible emotions and the paradox of nonexistent beings shaped in Emily Dickinson's poems. Moreover when the viewer experiences the inconsistency between what is seen and what is heard, it raises the question of uncertainty about the five senses – what could be considered as the most direct and objective fathoming channel when one implies it by saying, ‘I saw and felt it myself’–.

얼마나 반가운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반가워서는 안 된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작업을 선보이는 홍지연은 3개의 신작으로 이번 전시에 참여하였다. 오랜 한국 전통가옥 두 채가 하나의 전시장으로 탄생한 ‘오래된 집’이라는 전시장의 특성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붉은여인숙〉과 〈붉은여인〉은 작가가 김경욱의 단편소설 『만리장성 넘어 붉은여인숙』에서 착안한 단어이다. 언어가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홍지연은 각 나라의 언어에 담긴 특수성과 역사성에 대해 주목한다.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붉은여인숙〉의 ‘여인숙’이라는 단어가 활발히 사용되었던 70~80년대 한국의 숙박업소라는 시대적 배경을

If I could tell how glad I was
I should not be so glad-

Jiyon Hong has presented three new works in the exhibition, her much-awaited show in Korea. She was inspired by the renovation concept of Old House, which brought together two old Korean traditional houses into one exhibition space. The inspiration led to creating the work 〈Scarlet Woman〉 and 〈Scarlet Inn〉, which bases on the phrase “there is a red inn over The Great Wall of China” from the short story by Kyung-Uk Kim. The artist focuses on the distinctiveness and historicity of the language in each country, reflecting her own experience of residing in a culture that uses different language. The word ‘Yeo-In-Sook’ (an old Korean word for inn) in her work 〈Scarlet Inn〉 indicates the Korean lodging atmosphere in the 70s-80s when such word was commonly used. A (store) sign is a specific referent relying on language

담는다. 또한 간판이라는 특성에 담긴 언어를 통한 사회의 암묵적 동의 지시 대상물이라는 특수성을 훌날리는 전광판의 모습을 통해 상실된 사회적 동의에 대한 혼돈을 떠올리게 한다. 뿐만 아니라 홍지연은 〈붉은여인〉과 〈붉은여인숙〉을 파란색 안료로 표현함으로써 보는 것과 소리 내 읽게 되는 ‘붉은여인’과 ‘붉은여인숙’이라는 말의 대비를 관객이 직접 경험하게 한다. 그녀의 또 다른 작품 〈쏴〉는 빛소리를 연상케 하는 의성어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작품이다. ‘주룩주룩’, ‘쏴’와 같은 의성어와 함께 보이는 빛살의 흰 종이는 흰 벽을 만나 그 자체로는 가독성을 상실한다. 하지만 이내 종이와 벽면 사이 틈으로 비추는 빛의 그림자로 읽히는 글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모양새를 달리하게 된다. 이는 작가가 언어에 담긴 시간성과 역사성을 빛의 그림자로 표현한 것이다.

established upon implicit social agreement; and she brings about how the social agreement is being lost into confusion through the image of fluttering electronic signage. Furthermore, Jiyon Hong lets the viewer experience oneself the contrast between seeing and saying out loud ‘Scarlet Woman’ and ‘Scarlet Inn’ by using blue pigment to illustrate 〈Scarlet Woman〉 and 〈Scarlet Inn〉.

Her another work 〈SSwah〉 is a visual interpretation of onomatopoeia describing the sound of rain coming down. The pieces of white paper displaying traces of falling rain and onomatopoeic words ‘joo-rook joo-rook’ and ‘sswah’ lose the words’ legibility against the white wall. Yet the words emerge in the gap between the paper and the wall shaped by the light and shadow, and the shape varies as time passes by. The artist’s underlying intention is to portray the temporality and historicity of language using light and shadow.

전시장 가장 마지막에 있는 로와정의 또 다른 작품 <거울>은 전시되는 오래된 집 화장실에 맞춘 장소특정적 미술이자 전시 전반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두명 아크릴로 화장실 거울에 부착된 ‘Doubtful Faith(의심하는 신념)’은 지금까지 전시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한 객관적이라고 믿는 정보의 오류에 대해 다시 한번 관객 스스로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한다. 전시의 제목 <마침표와 불임표 사이>는 이렇게 전시를 통해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서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를 관람한 관객 스스로가 느끼는 감상까지를 전시 일부로 보고 이를 불임표로 표현하였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과 함께 전시 구성에 가장 초점을 둔 것은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전시 정보에 대한 부분이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이

관람자의 주관적 감상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번 전시의 모든 전시 정보는 전시 관람 후 구글 폼(form)을 통해 신청한 이들 만이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전시정보라는 객관적 정보의 일방적인 전달에 대한 경계와 작품과의 일대일 조우에서 반응하게 되는 관람객의 반응까지가 또 다른 정보의 생성으로 전시에 포함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전시라고 기대하는 선입견에서부터 탈피하는 것이 전시의 시작과 마지막이라 생각했다.

코로나19로 당연하다고 여기던 많은 것들이 상실된 요즘, 이번 전시가 우리의 당연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Another work by Rohwajeong is at the farthest end of the exhibition space; <Reflection> is a site-specific work for the restroom in Old House, conveying the message generally implied in the exhibition. ‘Doubtful Faith’, made of clear acrylic and attached on the restroom mirror, once again suggests the viewer to think back on what has been repeatedly presented to them through the exhibition - the error of what to be conceived as objective information -, while looking at their own reflections. The exhibition title <Between Period and Hyphen> is not completed by putting a period after conveying a certain curatorial message but includes the viewer’s individual viewing process as an ongoing part of the exhibition followed by a hyphen.

Along with the participating artists, the main curatorial concern has been not to provide any prior explanatory guidance regarding the exhibition. It has been deemed crucial that such information must not distract the

viewer’s personal experience of interpreting the works. So the exhibition information has been made accessible via Google Forms only to those who request it after their viewing. This is to take precaution against the exhibition information being forced into the viewer as an objective information and to incorporate the viewer’s individual reaction to the works into the exhibition as another newly generated information. Moreover breaking from any preconception of exhibition had to be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exhibition.

In recent days of COVID-19 many things we took for granted are taken away. I hope this exhibition to be a chance to look back on the things we regard as normal.

- | | | | |
|--|---|---|--|
| 1. 보르하 로드리게즈
<Google Why>
비디오, 04:52, 2013 | 7. 로와정 <바닥>
MDF, 각재, 바퀴,
가변크기, 2020 | 1. Borja Rodriguez Alonso,
<i>Google Why</i>
Video, 04:52, 2013 | 7. Rohwajeong, <i>floor</i>
mdf panel, wooden
dowels, caster wheels,
Dimensions
variable, 2020 |
| 2. 홍지연 <붉은여인>
캔버스에 아크릴,
94×77cm, 2020 | 8. 로와정 <시그니처>
쓰레발기, 빗자루,
가변크기, 2013 | 2. Borja Rodriguez Alonso
<i>Jiyon Hong, Scarlet
Woman</i>
acrylic on paper,
94×77cm, 2020 | 2. Rohwajeong, <i>signature</i>
brush, dustpan, dust,
dimensions variable,
2013 |
| 3. 로와정 <종>
황동, 가변크기, 2020 | 9. 로와정 <거울>
거울, 아크릴 거울,
가변크기, 2020 | 3. Rohwajeong, <i>bell</i>
brass, dimensions
variable, 2020 | 3. Rohwajeong, <i>reflection</i>
mirror, acrylic mirror
panel, dimensions
variable, 2020 |
| 4. 홍지연 <쏴아>
종이, 편, 가변크기, 2020 | | 4. Jiyon Hong, <i>Sswab</i>
paper pinned on wall,
dimensions variable,
2020 | 4. Jiyon Hong, <i>Scarlet Inn</i>
acrylic on paper,
94×77cm, 2020 |
| 5. 홍지연 <붉은여인속>
캔버스에 아크릴,
94×77cm, 2020 | | 5. Jiyon Hong, <i>Scarlet Inn</i>
acrylic on paper,
94×77cm, 2020 | 5. Jiyon Hong, <i>Ruler</i>
mixed media,
68×100cm, 2020 |
| 6. 홍지연 <자매자>
혼합매체, 68×100cm,
2020 | | | |

.마침표와 불임표 사이-
.마침표와 불임표 사이-
.마침표와 불임표 사이-
.마침표와 불임표 사이-

마침표와 붙임표 사이

Between Period and Hyphen
2020. 6. 18. — 7. 31

참여작가
로와경
보르하 로드리게즈
(Borja Roderiguez Alonso)
홍지연



why do they always send the poor
why do they always send the poor
why do they hate us
why do they rock so hard
why do they do it







로와정 <종>, 황동, 가변크기, 2020, 사운드, 10:24, 반복재생, 사운드 디자인: 날씨

Rohwajeong, bell, brass, dimensions variable, 2020, sound, 10:24, loop, Sound design: Nalse





If I could tell how glad I was
I should not be so glad-

얼마나 반가운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반가워서는 안 된다

— 에밀리 디킨스

로와정 <바닥>, MDF, 각재, 바퀴, 가변크기, 2020

Rohwajeong, *floor*, MDF panel, wooden dowels, caster wheels, dimensions variable, 2020





로와정 <시그니처>, 쓰레받기, 빗자루, 가변크기, 2013
Rohwajeong, signature, brush, dustpan, dust, dimensions variabl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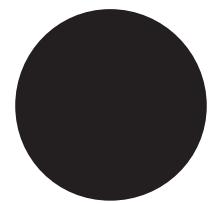


A small, irregular pile of dark, granular debris sits on the light-colored floor, matching the material found in the dustpan. It appears to be a spill from the dustpan or a piece of debris left behind.

로와정 <거울>, 거울, 아크릴 거울, 가변크기, 2020

Rohwajeong, *reflection*, mirror, acrylic mirror panel, dimensions variable, 2020





홍지연 <붉은여인>, 캔버스에 아크릴, 94×77cm, 2020
Jiyon Hong, Scarlet Woman, acrylic on paper, 94×77cm, 2020



홍지연 <붉은여인숙>, 캔버스에 아크릴, 94x77cm, 2020
Jiyon Hong, Scarlet Inn, acrylic on paper, 94x77cm, 2020



홍지연 <쏴아>, 종이, 빈, 가변크기,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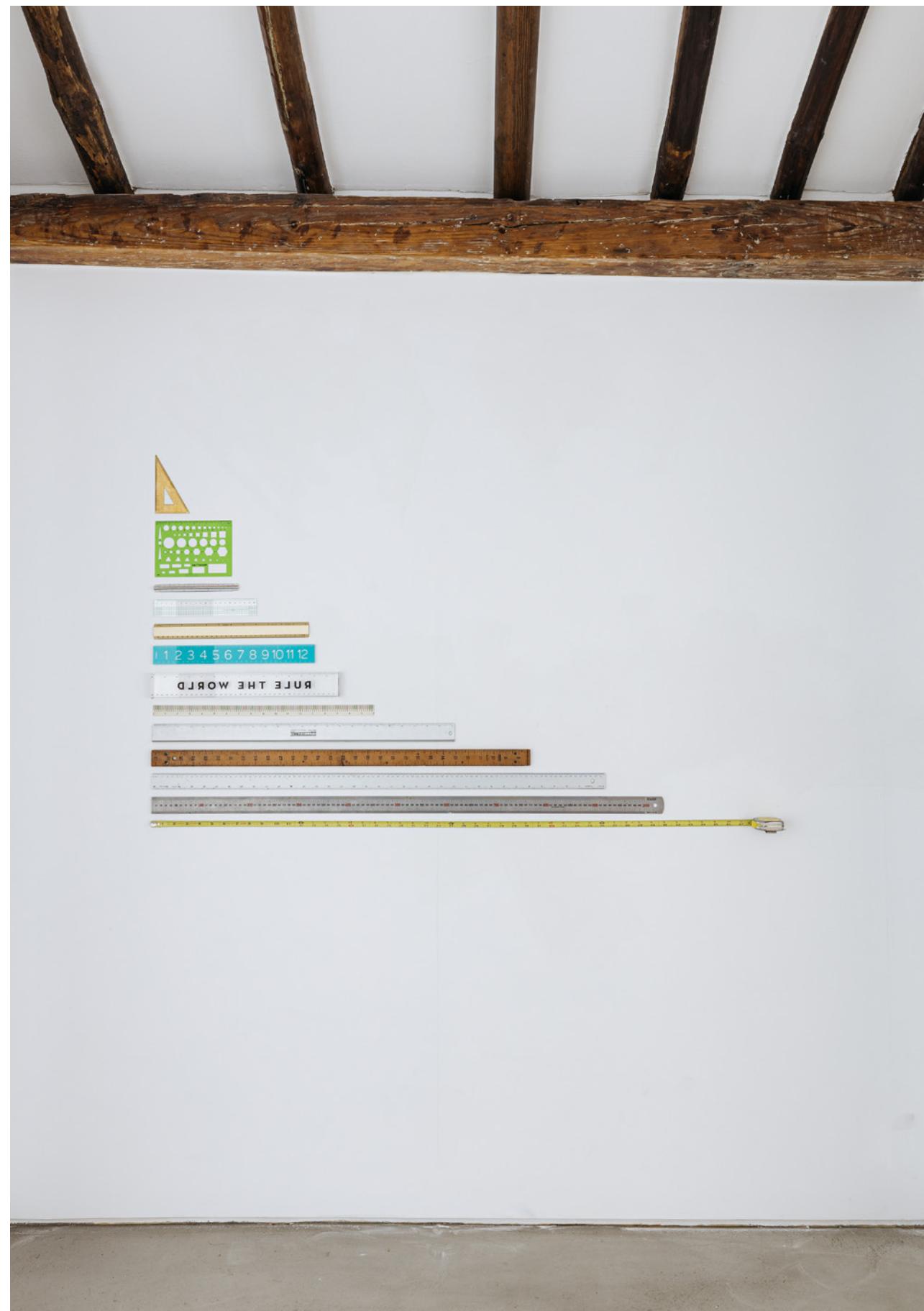
Jiyon Hong, *Sswab*, paper pinned on wall, dimensions variable, 2020



EXB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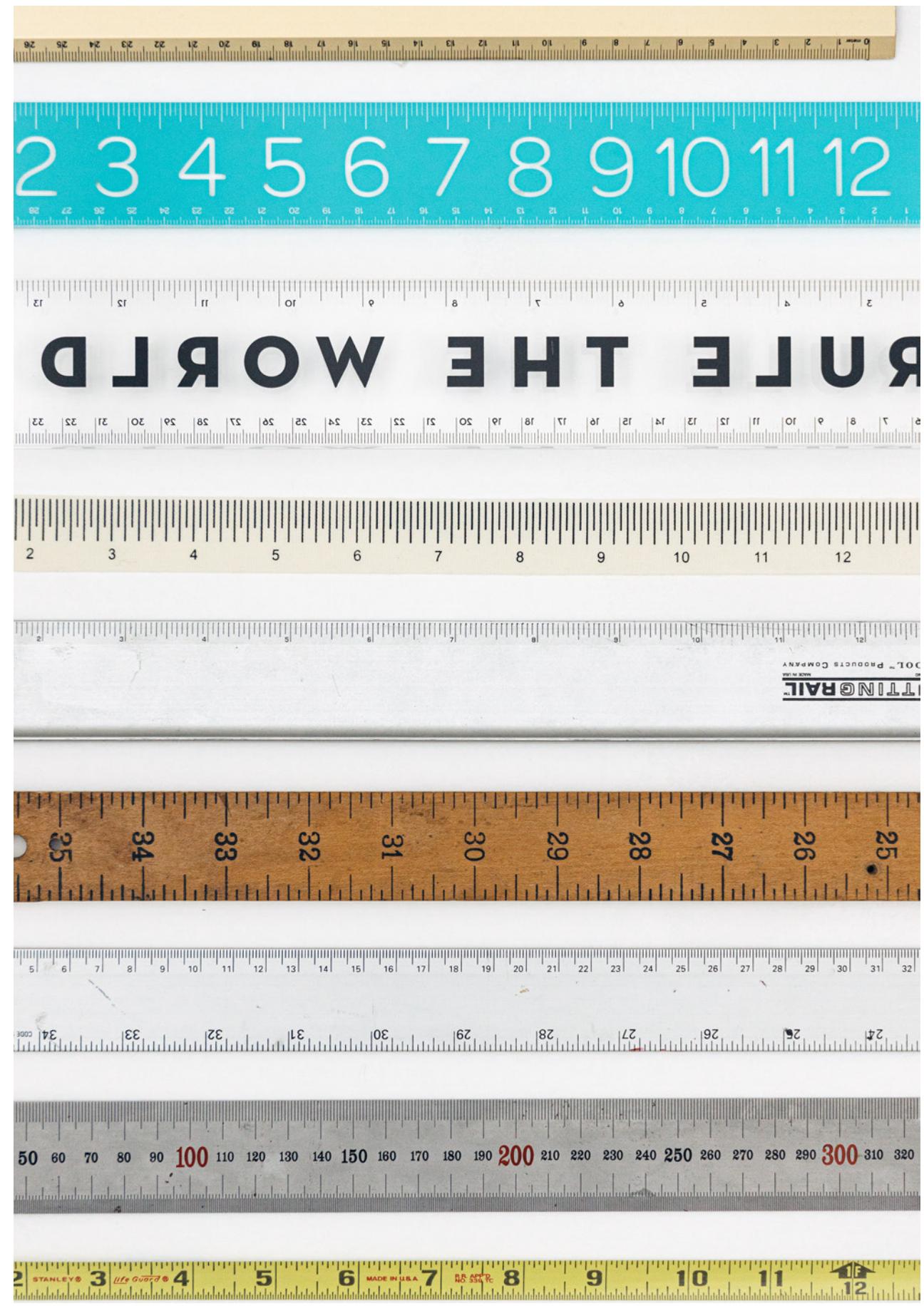
홍지연 <지배자>, 혼합매체, 68×100cm,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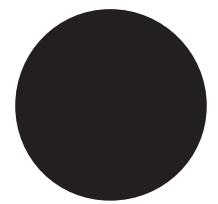
Jiyon Hong, *Ruler*, mixed media, 68×100cm,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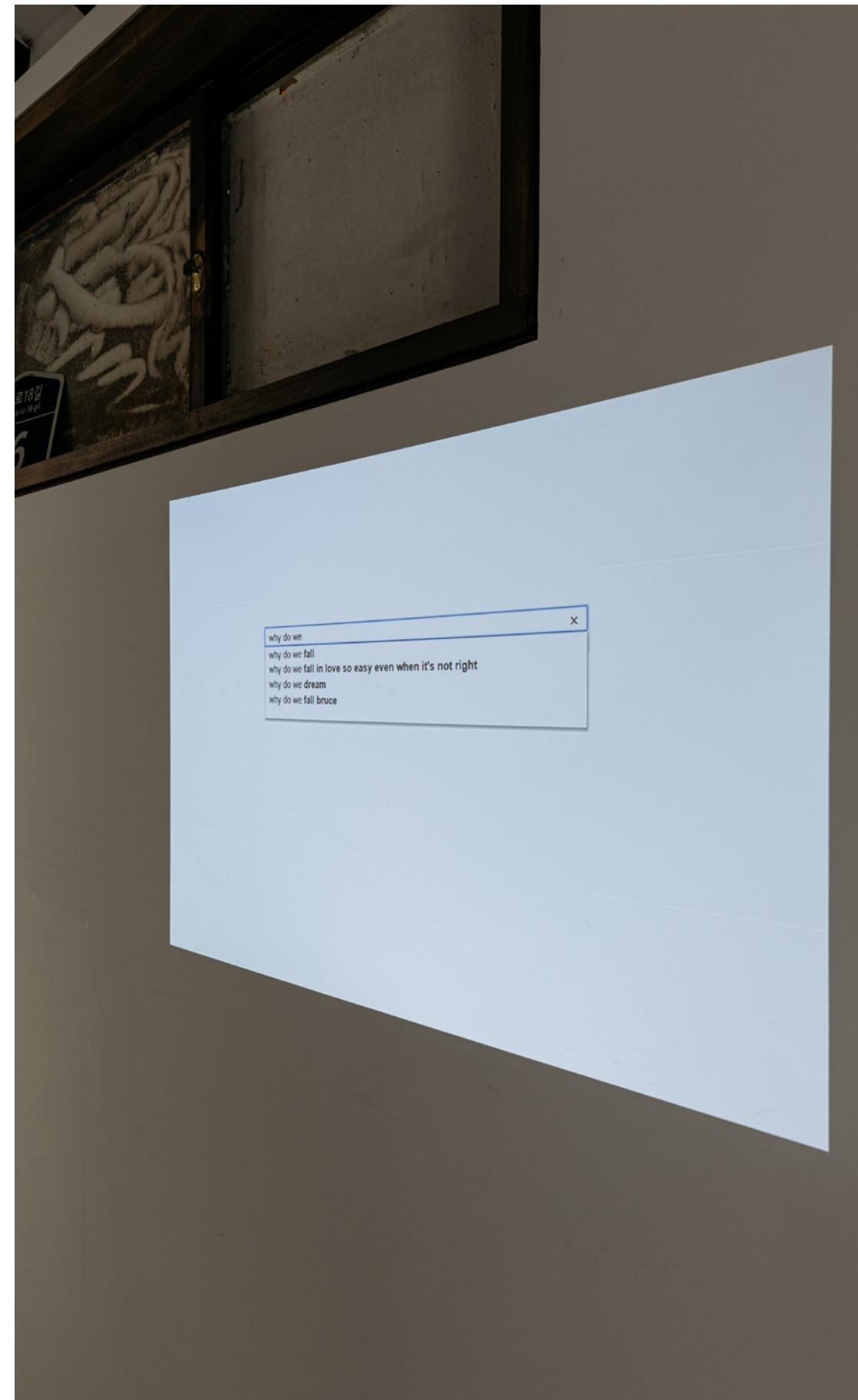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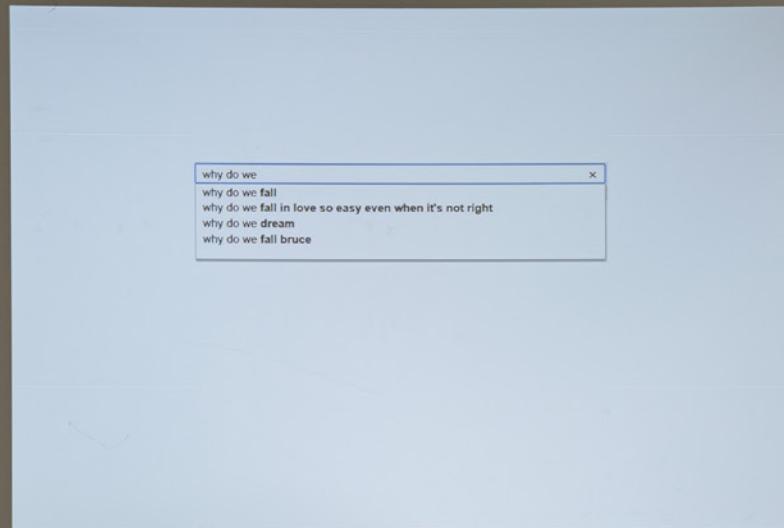
52





보르하 로드리게즈 <Google Why>, 비디오, 04:52, 2013
Borja Rodriguez Alonso, *Google Why*, video, 04:52, 2013





Why do blacks

x

why do blacks **commit more crimes**

why do blacks **have big lips**

why do blacks **vote democrat**

why do blacks **say ax**

Why do men | x

- why do men **cheat**
- why do men **like breasts**
- why do men **like oral so much**
- why do men **cheat on their wives**

Why do whites |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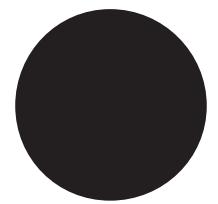
- why do whites **turn yellow**
- why do whites **hate obama**
- why do whites **and asians get along**
- why do whites **act black**

Why do women | x

- why do women **live longer than men**
- why do women **cheat**
- why do women **like bad boys**
- why do women **have periods**

Why do europeans | x

- why do europeans **hate america**
- why do europeans **smoke so much**
- why do europeans **like canadians**
- why do europeans **hate jews**



A vertical black line runs from the top to the bottom of the image, positioned roughly in the center.

로와정은 노윤희 정현석으로
구성된 미술가이다.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관심사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직접보다는 간접, 특별함
보다는 평범함을 선호한다.

보르하 로드리게즈는 스웨인에서
거주하며 뉴미디어 작가이자
산업 마케팅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역학과
이를 가능하게 한 기술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사회 구조와
기술 혁신의 복잡한 관계에
중점을 둔다.

홍지연은 표상과 관념의
불완전함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 그녀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방식을 통해 인식의 오류와
한계를 찾는다.

RohwaJeong is duo artist
who consists of Noh' Yunhee
and Jeong' Hyunseok. They
have been expressing their
ever changing interests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surroundings.

They prefer indirect to di-
rect, banal to special, and mar-
ginal to significant.

Borja Rodríguez Alonso is a
visual artist and essayist spe-
cialized in the influence of new
technologies on social dynam-
ics. Since the early years of
the new century we have seen
a series of generalized dy-
namic mass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around a myriad
of social networks, blogs and
large groups of file repositories
shared by millions of people
dayly. As an artist it didn't take
he long to begin exploring in
a critical way these new social
dynamics and the technolo-
gies that made them possible,
making them my new reference
contexts and performance of
his creative research.

Today's perception of the
world and ourselves increas-
ingly corresponds with the
technological devices percep-
tion. A new form of intercepts
identification generated by
their own ability to observe and
transform us, we are never the
same in front of a camera.

Jiyon Hong has been focusing
on the gap between so-called
objective reality and one's
perceived reality and how the
latter mutates, moving away
from the real before us. Her
methodology of applying visual
structures such as distancing
from the familiar enables her to
find the errors and limitations
of the logic in our perception.

기간

2020. 6. 18 ~ 2020. 7. 31

장소

오래된집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8길 16

참여작가

로와정, 보르하 로드리게즈, 흥지연

기획

정소영

글

김성희

디자인

신덕호

사진 & 영상

서스테인웍스

번역

고진영

주최.주관

(사)캔 파운데이션

후원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ISBN 979-11-966182-3-0

Between Period and Hyphen.

Period

2020. 6. 18 ~ 2020. 7. 31

Venue

Old House

16, Seongbuk-ro 18-gil, Seongbuk-gu, Seoul,
Republic of Korea

Artists

RohwaJeong, Borja Rodriguez Alonso, Jiyon Hong

Curator

Soyoung Chung

Text

Seunghee Kim

Graphic Design

Dokho Shin

Photo & Video

Sustainworks

Translation

Jin Young Koh

Host

CAN Foundation

Sponsor

Seoul,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ISBN 979-11-966182-3-0

